



불서광장

부처님 목소리 들리나요?

홍사성 시인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 통해 삶의 지혜 전달

신라원족의 유식사상 연구/남무희 지음/민족사 펴냄/1만8000원
원족(613-696) 스님이 살다 간 때는 신라의 격변기였다. 왕족으로 태어나 3세에 출가하고 15세에 당으로 유학을 간 원족 스님은 축천무후의 존경을 받았고 번역 사업에 공을 이루었다. 저자는 이 연구서를 통해 신라와 중국대륙의 격변기를 살면서 독보적인 화쟁적 유식학을 완성한 원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원족 스님이 주장한 '서명학과 유식사상'의 성립 배경과 과정다른 학파와의 관계 등을 망라했다.

불교의 근본 원리로 보는 반야심경 금강경/김윤수 지음/한신암 펴냄/2만원
'공' 사상을 가르치는 반야부의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이다. 저자는 이 두 경전을 자세히 풀어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나침반으로 삼기를 바라며 책을 썼다. 그러나 이번 개정판을 내며 좀 더 심화된 설명으로 두 경전의 깊이를 짚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반야부의 경전이 나오기까지 불교의 성립과 전개 상황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왕초보 불교교리 박사 되다/고명석지음/민족사 펴냄/9500원
책의 이름대로 왕초보를 위한 불교교리 해설이다. 민족사의 왕초보 시리즈는 이미 불교 초심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교과서가 되었다. 교리란 한 종교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이 책은 종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문을 연다. 연기법 12연기 사법인 사제제 팔정도 등 기본교리부하지 않으면 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 이 책은 대승불교 불교역사 수행 등 분류별로 필수적인 교리들을 상세히 풀이하고 있다.

번뇌를 지닌 채 부처가 된다/석진오 지음/우리출판사 펴냄/1만5000원
부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중생이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생이 가지는 번뇌를 다 털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 역설이야말로 부처의 눈을 얻으려는 중생의 부단한 노력을 독려한다.

당신을 위한 맞춤형요가/서미필드 코치 지음/곽미자 옮김/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2만5000원
5000년 역사의 아유르베다 의학 체계에 바탕을 둔 개인의 체질에 적합한 아사나(자세)를 다루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인간의 체질을 마음 몸 유행을 나눈다. 이를 도사라 하는데 각 도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 환경 생활 양식과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 균형을 이룬 도사는 행복과 편안함을 주지만 불균형적인 도사는 불편함과 질병을 가져 온다.

불편과의 악수/정목훈 지음/21문예정신 펴냄/1만원
다양한 형식과 실험정신으로 시를 쓰는 작가는 시 속에 잡겨든 각양각색의 어조를 통해 격렬한 충동을 분출하면서 통찰의 눈빛을 유지한다. 시인은 현대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삶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긴장을 포획하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가다 보면 근원적인 고독이 보이고 고독을 즐기다 보면 삶의 가치가 느껴진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신(天人)이나 용이 아니다. 지나간 수많은 세월을 살펴보니 이런 저런 인연에 얽혀서 방황했지만 이제 번뇌를 끊고 나쁜 버릇을 버려서 삼독 번뇌의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나고 죽는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붓다(buddha)'라 이름 하느니라.'(잡아함 '인간경')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원형적이며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함부 경전. 홍사성 前불교방송 상무가 현실 생활속에서 삶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기 쉽게 정리한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을 펴냈다.



한 삶', '사색과 성찰' 등 주제별로 300 가지 법문을 한 권으로 묶었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며 논증적인 교리보다는 읽어서 이해가 되고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 위주로 선별했다.
작가는 "옆에서 얘기하듯 자상하게 들려주는 아함경의 부처님 말씀은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맑은 눈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부처님은 실천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돼 아함부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아함경>은 부처님 입멸 후 100일 만에 정법의 인멸을 우려한 제자들이 당시 인도 라자가 하 칠엽굴에 모여 최초로 결집한 경전. 최근 4부 아함의 팔리어 원전인 니까야(Nikaya)가 번역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권으로 읽는 아함경>의 출간은 쉽고 자상하면서도 삶과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초기경전이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시대사 | 2만5000원
김성우 기자

깨달음 · 열반 강조한 초기경전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처(依處)를 여의고, 전생(轉生)을 여의고, 대상을 여의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우다나)
빠알리대장경 쿳다까나까야에 수록된 <우다나(Udana)>에 나오는 '열반'에 대한 부처님 법문이다. 깨달음이나 열반은 개념적 사유로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성자의 지혜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라 '극묘(極妙)'라고 불리고, 유훈법적 사유의 근본구조를 초월하므로 '극난견(極難見)'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런 점에서 초기경전 가운데 '깨달음'과 '열반'에 대한 감흥 어린 시구들을 그 인연담과 함께 들려주는 <우다나>는 가장 심오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학회 전재성 회장이 <우다나>와 그 주석서인 <우다나의석>을 함께 번역, <우다나, 감흥어린 시구>를 발간했다. 1999년 <쌍웃다나까야>를 출간한 이래 많은 초기경전을 번역한 전 회장은 지난 해 <법구경-담마파다>에 이어 방대한 주석을 곁들인 또 하나의 중요한 초기경전을 한국 불자들에게 소개한 것.
전 회장은 "최상의 행복(至福)에 도달하기 위해 중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다나>만큼 탁월하게 설명한 경전은 없다"면



우다나-감흥어린 시구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학회|3만

서 "양극단을 여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다나의 가르침은 생명에 대한 폭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욱 피부에 와닿는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엄마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누구에게나 '엄마'는 근원이다. 엄마의 자궁속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곳은 없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자궁에서 나왔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번뇌와 갈등과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궁속의 평안을 되찾으려는 노력, 그것은 바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관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엄마는 가장 맛 좋은 바나나 같고 맛있는 쌀과 같이 밍글이냐 설탕 같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뿐입니다." 탁났한 스님의 바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엄마라는 근원에 물질을 대고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분명하게 응시하라는 것이다.
임연태 기자



엄마
탁났한 지음/이도홍 옮김
아름다운 인연 펴냄|9800원

모든 게 생애 단 한 번 뿐인 인연



일기일회
법정 스님 지음
문학의 숲 펴냄|1만5000원

법정 스님의 법문집이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철마다 펼친 법문들을 다듬어 묶은 것이다. 법정 스님의 에세이들이 서점가의 장기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문집이 나오므로 스님의 법향이 더욱 진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올 봄에 한 법문에서부터 2003년의 법문까지 총망라했다. 세상을 바로보고 바로 사는 길을 열어주는 법정 스님의 법문들은 묵은 전적 속의 진리가 아니라 생활 현장의 실천을 담보하는 활구들이다. 그래서 에세이와는 다른 힘으로 시선을 잡아당긴다. 한 말씀만 인용해 보자.

"삶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애 단 한번 뿐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 성전 | 마음의 숲 |
| 2 |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 해국 | 사유수 |
| 3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4 | 승가의법 | 동주 | 흥원사 |
| 5 | 쉬고 또 쉬고 | 무어 | 새로운 사람들 |
| 6 | 인과경 | 현담 | 선 |
| 7 | 삶은 고가 아니다 | 대행 | 한미음선원 |
| 8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 9 | 행복한 출근길 | 법륜 | 정토 |
| 10 | 세어본 소안 존재한다 | 월호 |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불멸조는 미래의 시대(현재)로 미래의 신장불 용화세계의 불새로써 세 방위의 날카로운 갈날이 **악운액살**을 일시로 소멸함으로써 앞길을 뺨뺨 뚫어주고 열어주는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높이 22cmx폭 26cm

미륵부처님의 지혜로운 보석을 안착하여 가정의 앞길을 밝혀주는 두배의 영험력으로 최고의 행운을 열어주는 **길상**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신의 열음을 안착하였으므로 순금으로 도금하여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

삼신일체사상인 천(天), 지(地), 인(人:삼각형,빨간색)의 원력이 함께하여 기도성불,성취되게 하며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이 **불멸조**는 범당전안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악운, 액살, 잡귀 등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 건강,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사업장에는 사업번창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과 원력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입니다. (현재 많은 불자들이 영험하다고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신기하다고 함)

◇ 보시금 : 330,000만원

계좌 번호 : 우체국 100941-02-294031 (예금주 : 엄 홍수)
구입 문의 : 핸드폰 010-8674-5351 / 070-7644-8684

안양 불교대학 신입생 및 합창단원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은 불교대학 신입생 및 합창단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며 함께 수행 정진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과정 | 내용 | 일정 | 자격 | 인원 |
|-----|----------|----------------|-----------|------|
| 기초반 | 기초교리 | 매주 화요일 오후2시~4시 | 제한 없음 | 100명 |
| 경전반 | 금강경,지장경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 제한 없음 | 100명 |
| 아간반 | 기초교리,금강경 |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 제한 없음 | 100명 |
| 합창단 | 합창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 만 60세이하여성 | 99명 |

◆제출 서류:
지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접수및문의:
지장선원 중무소
031)444-5935



전세계불자를 위한 묵산(默山) 큰스님의 자비의 소리...

금강경 강송 (金剛經 講頌)

KUMKANGGYUNG RECITATION



默山 剛慧 大禪師
Mooksan ganghye DAESUNSA

묵산 큰스님의 금강경강송 1집

2009년 88세 원로 큰스님을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위하여 중생세도에 정진수도중에 있으며 2008년 5월 금강경의 노래를 CD로 제작하여 전세계에 보급중에 있습니다.

묵산 큰스님의 금강경의 노래를 듣고 모든 불자님들! 모두가 자성 찾아 성불합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산1 보림선원
San1, Jungyung4-dong, sungbuk-gu, seoul Korea
TEL : 82-02-914-6187